

# 김용범 “닥치고 지어야 한다”… 주택 공급 부족 정면 지적

(청와대 정책실장)

지자체·중앙정부 협력 부족 언급  
수도권 중심 부동산 공급대책 시사  
李 지지율 하락 해석에는 거리두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공급 부족도 문제라는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만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인 데 대해 “노동이나 세제나 주택 등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저의 제일 큰 걱정거리라 직접적으로 (말해서) 부동산이다. 주택 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며 “많이 지적하는대로 전월세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고,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3년~2024년에 PF부터 고금리 등 얼마나 어려웠나”라며 “예년보다 30~40% 공급이 될 때 준비가 될 것이라고 그 결과가 지금 온다. 2~3년 전부터 준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가 안 된 게 갑자기 올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유동성이나 거시 매크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사실 수급만큼이나 매크로도 중요해서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화두를 던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어 “닥치고 지어야

한다. 닥치고”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태릉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공급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선 “부처도 그렇고 경마장도 그렇고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조만간 정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에서 “세제·금융·규제·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정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내달 정부에서 세계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와 맞물려 다른 부동산 정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는 곧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일시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정부의 6·27과 10·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얼마나 강한 조치냐”면서도 “월세나 이런 것이 도드라지고 있고, 이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주택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세제·주택 정책 방향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민심을 감안해 방향 전환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큰 전환을 해야 한다기보다 미진했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더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정책 기조 때문은 아

니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지지율은 당연히 중요하다. 분석도 하고 있고 경청도 하고 있고 바뀌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청년 세대에 대한 전면적인 관심을 우선순위로 더 뒤야겠다는 내부 논의도 있다”고 전했다.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실장은 “문제가 없다기보다 노동과 세제, 주택 때문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진 않고, 선거가 있었고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년을 보면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는 시기가 한두 차례 있었다”며 “지난 번엔 선거 없이 사면 등 때문에 한번 출렁였다가 본 궤도로 복귀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세제 부분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sjy@metroseoul.co.kr



metro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퇴… 연임 도전

호남·친문·강성 지지층 공략 나서  
“이 대통령 지킬 사람 나” 연대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8·17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연임을 위해 호남과 친문(친문재인)계, 강성 지지층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과 정치 인생을 돌아봤다”며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러저러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다”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병청갈등(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과는 200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라며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다.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대통령의 성공과 그와의 의리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통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여럿 발신했다. “저는 행동하는 양심 감대중 대통령의 동고동 사자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 ‘노사모’,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 등 민주당의 이전 정부 대통령들을 모두 언급했다.

또 정 전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사퇴 후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설치된 평산 책방 부스를 방문했는데, 이곳을 찾은 것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최근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계속 비공개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대표는 전날 공개 일정 없이 전남 화순, 광주 송정읍을 찾아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여성계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전북 군산·전주·익산, 20일 전남 담양·순천·장흥·해남 등을 방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어 전북지사 공천 등 잡음이 생기면서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성 당원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정 대표는 “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이 제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1인1표제’ 감사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세운을 잡고 검찰개혁을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다. 1인1표(대위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 동일), 검찰개혁은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의제다. /서예진 기자

## 국힘 장동혁 “당대표 거취는 당원 결정”

투표용지 사태에는 ‘재선거’ 역설

옛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일 자신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당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몇몇 의원이 결정할 문제는 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일축한 셈이다. 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퇴원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이 ‘병청대전’ 소용돌이에 길을 잃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데드크로스고, 우리 당을 향한 국민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올 초 있었던 단식의 여파, 지방선거 및 올림픽 공원 시위 참석 등으로 인한 과로로 입원을 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하나 돼 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우리당을 떠날 것”이라며 “근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떤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 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 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 당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해결책은 “재선거”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정권 수호를 위한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는 “어제 국조특위를 보면서 특검과 재선거 거부에 없다는 생각을 더 굳혔다”며 “올림픽 공원의 순수한 시민들과 함께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언어 유평타가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즐기게 우겨댔던 공소취소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포기하고 법원이 이재명 재판 재개하게 우리 당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당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정치 개혁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대표 혼자 결정하거나 의원 몇명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및 김민석 총리 등 여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이 원하는 특검과 재선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채 마음만 저 앞에 개헌으로 가있다”며 “연임 여부에 대한 답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얘기하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 李 “징집병 최소화… 선택적 모병제 전환”

연평도 찾아 장병들과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병부대를 찾아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간담회를 한 후 부대시설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군대도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을 해야 되겠다”면서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의무 징집(단기)과 모집 형태의 기술집약형 전무부사관(장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장병들의 건의를 듣는 ‘타운홀 미팅’처럼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일단 이전에 병사들에게서 육지로나갈 때 배표가 일반인과 같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선시당선인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일 주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K2C1 소총 사격을 하고 있다. /뉴스1

병사들은 노후 시설 정비, 위문열차 방문, 준4군 체제 전환에 대한 감사, 군의관 지원, 포병 훈련 강화, 휴가 제도 개편 검토, 병역명분가 할인 혜택 개선 등 다양한 사안을 건의했다. /서예진 기자